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총회와의 행정 보류 해제키로

2월 25일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우리 교회 당회는 지난 2월 25일 총회와의 행정 보류를 해제하고 총회 산하 모든 교회를 형제 교회로 여기고 겸손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정진해 나갈 것을 가결하였다.

우리 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8년 2월 21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행정적 관계를 보류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 보류 관계가 계속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바도 아닐 뿐더러 당회측 입장에서도 지교회의 난제를 도와 주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교회와 총회 임원을 비롯한 뜻 있는 분들

의 연합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 문제가 한국 교계에 덕을 세우지 못함을 인식하고 1990년 2월 26일자로 행정 보류를 해제하기로 결의하였고, 총회측 입장에서도 전통적 장로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쌍방은 서로의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전국 교회에 이를 알리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 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양측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회측 성명서

충현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8년 2월 21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이성택 목사)와의 행정적 관계를 보류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상 지교회가 독립교회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덕스럽지 못함은 물론이고 반면에 총회측 입장으로 보아도 지교회의 난제를 도와 주어야 하는 전통적 장로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를 안고 있어, 그 동안 총회 임원을 비롯한 뜻 있는 이들의 기도와 연합을 위한 간절한 노력이 있어 왔다. 따라서 충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행정 보류를 1990년 2월 26일자로 무조건 해제하면서 그동안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충현교회는 차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모든 교회를 형제 교회로 여기고 겸손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정진해 나갈 것임을 교계에 천명하는 바이다.

총회측 성명서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교회의 바른 신앙과 사역을 돕기 위해 이미 1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총회로서 요한 칼빈의 신앙사상에 근거한 행정 원리를 강조하여 왔다.

지난 1988년 2월 21일자 충현교회 당회가 본 총회 산하 수도노회와의 행정 보류를 선언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중경 총회장을 위시한 전국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의 결과로 충현교회 당회는 조건없이 행정 보류를 해제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본 총회는 충현교회 이종윤 위임목사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원임을 확인하며 이 같은 교회의 화평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전국 교회와 충현교회 당회 및 노회 앞에 감사를 드린다.

예장측 신학원 교수 모임 가져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22일 예장측 신학원 교수 모임을 주관하고 신학원간의 상호 교류 문제를 포함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0여 명의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충현교회가 여러 신학원 교수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공동의 문제를 의논하게 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가능하면 이 모임을 우리 교회가 계속 주최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또 신학이나 교리 문제보다는 지엽적 이유로 신학교가 갈라지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선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특히 신학교 간에 학점 교류 문제, 교환 교수 문제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모임에는 총신대학 박영희 학장, 합동신학교 김명혁 교장, 개혁신학교 이진태 교장을 비롯하여 허순길, 차영배, 신복운 교수 등 여러 분의 교수가 참석했다.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⑧

자식을 사랑하거든 여행을 보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보아야 부모의 은공을 알듯 인간은 밖의 세상을 접해 보아야 가정의 소중함과 이웃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가 봅니다. 수록만리 먼 동구라파에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왔는지를 새삼스럽게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두고온 충현의 가족들 생각으로 내 마음은 어느덧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동구권 선교의 문이 열려 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소원인 북한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의 성도들이 저를 위해 쉬임없이 기도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큰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이종윤 목사

위임목사 동정

교계 신문 기자들과 회견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2월 26일 김창인 원로목사와 함께 교계신문 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현안문제를 설명하였다.

위임장 장로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회견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취했던 행정보류를 해제하고 한국 교회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면서 협력해 주신 교계 지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또한 이종윤 목사도 회견에서 우리 교회가 총회와의 행정보류를 무조건 해제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창인 원로목사 선교여행차 출국

3월 2일엔 구국성회 인도

김창인 원로목사는 지난 3월 2일 선교교회에서 개최되었던 3·1절 기념 구국성회의 강사로 초빙되어 이 민족의 살 길은 민족 복음화임을 역설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다.

한편 김 목사는 미국과 유럽 선교여행을 위해 오는 3월 6일 출국하게 된다. 이번 여행을 통해 김 목사는 뉴욕, 스톡홀름, 코펜하겐, 로마 등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7월 5일 귀국할 예정이다.

12교구 가족잔치



교구의 활성화와 친목을 위한 모임이 200명의 12교구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4일 오후 3시 매추라기 홀에서 열렸다. 12교구 담당교역자인 신평근 강도사의 설교가 있는 후, 김광신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 구역일꾼 및 남여전도회 임원소개가 있었으며 예찬을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교회안내

주일예배	I부: 오전 7시 II부: 오전 9시 III부: 오전 11시 IV부: 오후 1시 English Service: 오전 9시 찬양예배: 오후 7시 ※ III부에는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 통역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1~6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1~2부, 청년3~4부, 소망부, 영아부, 직장전도부, 새가족부, 새가족부, 사랑부, 예배대부, 탁아부, 삼동경로대학
방송설교	기독교방송(837KHz) 주일 오후 7시
신앙	화요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55-6684)
의료·병문	주일 오후 12시30분~오후 3시
일반	주일 오후 1시~오후 5시 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66-5122)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요 7:53~8:11)

본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본문의 문제가 요한의 것과 다르며 본문의 위치가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에,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문제로 부각된 것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사본이 있는가 하면 누락된 사본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본문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듭했지만 초대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송사

예수님의 메시야성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변론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사도들이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표본이 된 것입니다.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볼 줄 알아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송사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송사에는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범을 체포했으면 행위의 잘 잘못을 가리는 재판정으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말씀을 강론하는 성전으로,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시간에 예수님께로 끌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기 위한 수작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속셈을 사도 요한도 간파하고 요한복음 8장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무리들은 허기진 맹수처럼 돌을 들고 몰려오고 여인은 형크러진 머리에 흐느껴 울며 끌려오는 장면이 전개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대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라고 그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시에

잘 알려진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요8:5; 레 20:10; 신 22:23, 24).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일곱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려고 하였던 용서의 진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로마법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공회는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치신 법을 스스로 깨뜨리게 될 뿐 아니라, 로마의 법까지 어기게 되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고 대답할 경우에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를 유대인들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노린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였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 넣고 둘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교활

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인간들은 이러한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악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성을 날마다 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므로써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의 반론

벌떼같이 몰려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송사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순간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8:7).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의 죄과를 결코 가볍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범한 간음죄는 무서운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시려고 한 것은 한 여인의 간

음 행위보다는 심판의 대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 타인의 행위를 따지려는 월권 행위와 모독 행위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 누구도 기대했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욕망까지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7장 4절, 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부터 의외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계시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간음죄를 범한 여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3. 사죄의 은총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혼자 남아 있는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요 8:10, 11).

불의한 고소자들에 대해서는 준엄하시던 예수님께서 죄 많은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서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

방향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이었습니다.

4. 본문에 나타난 진리

첫째,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린 죄도 크지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다른 여자의 생명을 매장시키고,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아버린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비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죄를 범한 여인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개인, 가정, 국가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범인을 정죄하지 않고 놓아 주려면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때 증인이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놓아 준다면 이 일로 예수님이 잡혀갈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가 죽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면 해답이 있음

의 심정으로 한없이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정죄”란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노’라고 하는데 이는 형벌이 따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판단하여 그것의 경중을 가려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죄도 않으시고 선고 유예를 하셨습니다. 다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관심은 정죄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의 촉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다른 사람을 좌절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는

을 각오를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죽음에 근거한 죄 사함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불쌍한 여인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덤벼드는 군중은 아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죄를 짓고 흐느끼는 여인과 같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인터뷰

선교 사역 마치고 출국하는
테리 파이 선교사

14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우리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사역하시고 오는 3월 12일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시는 테리 파이 선교사님 내외분을 만나보았다. 선교사님께서 이삿짐 정리 관계로 무척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잔잔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진해의 벚꽃, 제주도, 설악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3년간 마산에 계시던 동안에 제외하면 줄곧 중현교회에 계셨는데 처음에는 대학부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지도하시며 요즘도 그때 학생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고 하셨다. 88년부터 시작한 영어 예배는 처음부터 담당하셨는데 아직은 외국인들의 참여가 적지만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

시면서 멀리 있는 외국인들이 참석하기에는 예배 시간인 9시가 좀 이른 것 같다고 하셨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예배 모습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영어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다.

한국의 교인들과 영국 교인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한 성도의 교제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영국인들은 일상 생활이나 개인적인 기도 생활, 경건의 시간(Q.T.)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셨다. 영국에서는 교회수나 교인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전도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덧붙이시면서 전도할 때에도 문화상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선교사님 슬하에는 장녀 엘리자베스(17세), 장남 스데반(16세), 차남 디모데(13세) 2남 1녀가 있는데 막내 디모데는 일본에서,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스데반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셨다. 자

녀들이 선교사이신 부모님들을 무척 사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선교 사역에 늘 힘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영국에 가시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가족간의 공동생활을 하시겠다고 환히 웃으셨다. 삼남매 중 막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다른 남매들도 중현교회에서 유치부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다.

영국에 가시면 O.M.F. 영국 지부나 영국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실 예정이신데 환갑 잔치는 2001년에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하셨다.

선교사님께서는 토목 기사로 일하시던 중 하나님의 계속적인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셨고 그곳에서 사모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73년에 결혼하셨고 77년까지는 영국 북부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셨단다.

국적과 피부색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실감하며 선교사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2월 17, 18 양일간 청년2부는 “기독교년과 역사”라는 주제로 겨울 계절학교를 열었다. 성주진 교수께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오덕교 교수께서 “교회사와 역사”, 김정우 교수께서 “종말론과 역사”를 강의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본 청년회에 절실히 요구되었던 기독교년으로서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며 재인식시켜 주었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개척의 시기적인 측면에서 청년회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던 면과 현실에서 갈등적 요소로 존재하는 기독교인의 현실인식과 참여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주제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한다.

역사라는 사고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현재 이곳에 우리’가 맞닥뜨린 대상으로 구체화시키며 작용하는 과정상 하나의 문제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성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역사 해석의 도구로서의 성경과 그 해석에 보다는 성경의 의미가 역사를 이끄는 주체로써 하

나님의 섭리하심에 궁극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역사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무목적의 허무에 시달리거나 일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신적 역사 운행에 동참하는 유목적적(有目的的)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한 강의였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속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밀접하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제시는 그분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개혁과 복음증거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위상은 세속 역사에의 적극적 참여가 하나님의 역사 주관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말씀대로 살려는 자를
책임자로 쓰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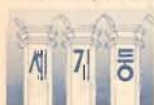
원 성 수 (청년2부)

오 교수님의 강의에서 초대교회시대로부터의 통시적 접근을 통해 교회와 그 교회를 갱신하는 역사의 주체를 부각시켰는데, 신약시대 이후 광범한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패함에 도전하는 측면의 모습과 교회가 역사의 주체로서 구속사와 세속사의 긴장감 혹은 괴리감을 극복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역사운동에 사용하시는가는 문제에 대하여 준비된 자요 말씀에 따라 살려는 의지를 가진 자가 바로 그 책임자임을 재확인케 된 것을 감사한다.

김 교수님의 강의는 묵시문학에 대한 바를 이해의 자세를 지적한 면에서 특이했다고 본다. 또한 요즈음 판치고 있는 종말적 내용을 소재로 한 모든 문화현상들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함을 강조했다. 불건전한 종말론, 즉 세대주의적 시나리오에 의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합당치 않으며 신약과 구약에서 나타난 묵시적 내용의 특징이 많은 경우에 상징적 의미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성취된 종말론과 입박한 종말론의 긴장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속명적으로 파동적이고 도파적인 요소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배제되어야 하며 현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적극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것과 규모 있는 삶을 통한 준비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계명은 실천하는 청년이 되고자 다짐해 본다.

불을
기다리는 마음

우 기 전 장로

불은 고독에 배 있을 내고 배를 풀밭에서 새싹을 돋아 나게 한다. 그래서 불은 사람들에게 화사한 꿈을 준다.

정장의 계절 꿈의 문턱에서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점차 넓혀 나가야 한다. 즉 믿음과 덕, 은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화 하고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화 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하려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을 몰아내고 제거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각급 교회학교에서, 구역 예배에서 중현 다락방이나, 중현 성경통신강좌를 통하여 또는 중현 성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保養)함과 같이 우리들은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여 섬겨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만 과잉 성장하거나 발육이 부진한다면 몸 전체의 균형은 깨어지고 결국 그 몸은 불구가 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모든 기관이 고루 발전해야 그 교회는 올바르게

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각 위원회간에, 위원회 내의 각 부서간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13개 위원회, 22개 제직부서, 27개 교회학교, 10개 찬양대, 14개 교구, 98개 남여 전도회 등 총합으로 짜여진 우리 교회의 줄한 지체들이 고루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미 천국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변역한 자 구제를 교회목표로 분명히 설정하였으므로 교회는 이 목표를 달성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체된 각 부서에서도 교회 목표에 구심점을 맞추어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데 밀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팬물에 소생하는 세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힘써 보양함으로써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 되고,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다음호 세기등은 조전근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학창시절에 지금의 아내와 만나게 되어 7년을 교제하던 끝에 마침내 대학원 2학년 때 약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나에게 무거운 짐이 하나 지워졌다. 그 짐은 처가가 될 집에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남에게 의지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고야마는 성격의 소유자인 교만한 나는 세례증을 사들일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약혼녀에게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세례증은 바로 살 수 없었으며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는 1년이 흐르고 나서야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1971년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을 하였으니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었고 나는 직장생활 핑계로 교회를 내 생활에 맞추어 가끔 한번씩 다니는, 성도가 아닌 교인이 되고 말았다. 교인생활 10여년을 하는 동안 아내 혼자서 기도하며 마귀와 싸움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기관지염으로 피를 토하게 되었고 좋은 직장도 잃게 되었다. 교만과 패기가 한숨으로 바뀌었다. 절망에 빠진 나는 아내의 권고로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하였다.

40일이 되던 날 새벽에 목사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자상하고도 엄숙한 말씀을 하셨다(막9:23). 그 말씀은 귀를 통하여 온 몸에 스며들어 나의 두 손을 모으게 하였고 머리를 숙이게 하셨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대목에서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건잡을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교회 안에 전등 불이 켜졌을 때 나는 벌써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이제 웬일인가. 내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머리 속에서는 알고 있



술독이 변하여 강대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염 군 영 집사

던 죄, 모르고 있던 죄가 스쳐가기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눈물과 콧물과 함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한참 동안 덩굴고 일어나 보니 2시간 이상이 흘렀다. 아내와 몇 분 교역자님들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어 나는 미안도 하고 부끄러워서 말없이 교회를 빠져나와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보니 온통 핏자국이 있었고 벌겋게 달아 올라 있었다. 그 이후로 병마는 깨끗이 물러갔고 나는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값으로 산 성도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서야 장모님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매일 기도하였음을 알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세례증을 사려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하셨고 10여 년을 방황하는 동안도 눈동자 같이 나를 지키셨고 성도의 그릇으로 만드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설교시간에 듣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열매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내의 기도의 열매가 난데 이 열매가 시들어 죽을 수는 없다고 결심하고 가까운 우리 형제들을 영태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82년도 추석 때 고향으로 내려가 형님과 형수님께 전도를 하다가 문득 그 근처에 교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을 위하여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나는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 줄 것을

기도하고 읍내 교회에 가서 고향 마을에 지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나는 새벽이면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였다. 3년을 기도 하던 중 추석이 되어 고향으로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집을 지나면서 그곳을 바라본 순간 나는 '오, 하나님' 하며 탄성을 외쳤다. 초가 지붕 주막집에 자그마한 십자가가 붙어 있고 쓰러져가는 벽에는 대길교회라고 써여 있었던 것이다. 내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이 주막집 부엌인데 부엌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자그마한 강대상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술독이 변하여 강대상이 되었네요.'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첫역사로 이루신 가나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믿게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나는 사업에 전념하면서 대길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대길교회를 건잡을 수 없이 가고 싶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토요일에 아내에게 준 월급 봉투를 달라고 하니 성령님의 인도인지라 아내도 선듯 내주었다.

대길교회에 도착하니 11시 예배가 막 시작되었다. 문을 열고 들선 나는 깜짝 놀랐다. 사모님 혼자 애기를 안고 목사님과 의가 없는 것과 그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르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본죄) 들입니다(롬 5:10; 엡 2:1, 3).

제19문 :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창 3:8; 롬 6:23; 갈 3:10).

설 명

아담의 범죄 때문에 왜 전인류가 벌을 받게 되었는가? 첫 사람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후손은 예외없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대표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질 문

1.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전 7:20; 롬 3:10)?
2.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렘 13:23; 롬 7:18)?
3.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롬 6:23)?
4. 당신은 스스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후 토의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과 온 인류의 타락

성경 : 롬 5:12~14

요절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찬송 : 184, 186

제16문 : 아담의 첫 범죄로 전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창 2:16, 17; 롬 5:12, 19; 고전 15:21, 22).

제17문 :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답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롬 3:16, 3:23, 5:12).

제18문 :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적